

■ 5월 증시 전망

# 단기급등 부담 커 '숨고르기'

중국 추가 건축·기업 실적 부진 악재

코스피 저점 1,400·고점 1,620 예상

4월 사상최고기 행진을 이어온 주식시장이 5월에는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단기급등으로 인해 가격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중국의 추가 건축과 기업 실적 부진 등 국내외 악재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글로벌 유동성도 풍부해 일시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29일 국내 12개 증권사가 내놓은 다 음달 코스피지수 전망을 보면 지수저점은 1,400~1,500, 지수고점은 1,570~1,620이었다. 이번 달 코스피지수가 신기록 행진

을 벌이며 1,450대에서 1,550대까지 도약한 것에 비하면 상승 탄력이 크게 둔화되며 심지어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다. 11개 증권사 중 7개사는 5월에 코스피지수 1,500선이 무너지는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특히 대한투자증권은 1,400선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대부분증권은 "세계증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10개월 동안 조정다운 조정 없이 상승세를 이어왔다"며 "5월 증시는 기술적인 측면의 부담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3개사는 코스피지수가 1,600선을 돌파하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들 중 현대증권과 한국투

■ 증권사별 5월 추가 전망 및 유망 종목

증권사	코스피지수전망	유망 업종 및 종목
삼성증권	1,480~1,600	금융 및 소비재
교보증권	1,500~1,580	기계·유통·금융·화학·화학
CJ투자증권	1,470~1,570	IT·제약·통신·전기차
우리투자증권	1,480~1,580	유통·건설·증권
현대증권	1,500~1,620	NHN·SK·현대해상
한화증권	1,480~1,580	소재·산업재·내수·금융
동양증권	1,470~1,600	한국전력·국민은행·유한양행·LG전자
키움증권	1,480~1,580	화학·조선·IT·제약
코모신한	1,520~1,610	유화·해운·철강·조선·기계
한국투자증권	1,500~1,620	LG화학·국민은행·한성·STX엔진

자증권은 지수가 1,620선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폈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매력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조정이 오더라도 통상적인 조정의 강도를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조정이 오더라도 주식을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증권사들은 5월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 ▲단기급등에

따른 가격부담 ▲기업실적 부진 ▲중국 추가 건축 ▲원화강세 ▲원자재값 상승 등을 제시했다. 반면 추가급락을 방어할 우호적인 변수로는 ▲세계경제 확장국면 지속 ▲내수경기 회복기대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등을 꼽았다. 아울러 조선 등 기존 주도주의 상승탄력이 둔화됨에 따라 내수주나 경기방어주에 주목하라는 조언이 이어졌다. 삼성증권은 조선과 기계, 철강 등 기존 주도주는 단기급등으로 인해 과열국면에 진입했다며 내수회복 수혜주인 LG화학과 국민은행, 한성, STX 엔진 등을 꼽았다. 유망종목 목록을 보면 동양증권증권이 한국전력과 국민은행, 유한양행, LG전자 등을 제시했으며 현대증권은 NHN과 SK, 현대해상을, 한국투자증권은 LG화학과 국민은행, 한성, STX 엔진 등을 꼽았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악스통 위 헤어댄스 (주)아모레퍼시픽의 헤어토틸 패션브랜드 미쟈센이 29일 광주시 동구 휴 플레이스 앞에서 헤어악스 출시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손님들이 움직이는 대형 악스통 위에 올라 팝핀 헤어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중국, 대한조선에 조선산업 육성 협력 타진

해남 화원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조선에 중국의 신홍공업도시인 장수(江蘇)성 옌청(鹽城)시 정부 및 기업이 조선산업 육성을 타진해 왔다. 자오펑(趙鵬) 공산당 옌청시위원회 서기와 후오 우린(胡友林) 위에다(悅達)그룹 회장은 최근 광주를 방문, 대주그룹의 대한조선에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제의했다. 옌청시와 위에다그룹은 중국 내에 50 대 50 지분으로 10만㎡급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 및 배후 도시 건설을 제안해 대한조선은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 내에 합작 투자 조선소가 건설되면 대한조선이 10년 이상 경영하고 그 이후는 양측이 협의한

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소 건설에는 양측이 1억 달러씩 모두 2억 달러를 투자하며, 총 투자비는 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측은 한국 내 대한조선 및 중국 신설 조선소에서 소요될 연산 300만㎡ 규모의 후관공장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 경제중심지인 동부 벨트의 중심에 위치한 옌청시에는 지난 2000년 기아자동차와 중국정부·기업이 합작투자한 '동풍위에다치차'(東風悅達汽車)가 들어서 지난해 11만 6천여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다. 또 오는 10월 옌청시에 '동풍위에다치차' 제 2공장 이 들어서면 도시 성장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치영기자 unipark@kwangju.co.kr

## 주택대출 규제 강화 신용대출 금리 폭등

지난달 0.17%P 상승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계속 강화함에 따라 자금이 필요한 가계 신용대출금리가 급등하며 가계 신용대출금리가 급등세를 보였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분 기준)는

연 6.32%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04년 1월의 연 6.34% 이후 3년2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금리가 이처럼 상승한 것은 신용대출 금리 급등에서 비롯됐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연 6.20%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으나 신용대출금리는 6.58%로 무려 0.17%나 폭등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이러한 신용대출금리는 2003년 7월의 연 6.89% 이후 3년8개월만에 최고에 해당한다. 특히 가계의 신용대출 가운데 집담대출을 제외한 일반신용대출의 금리는 연 7.42%로 전월보다 0.31%나 폭등했다. 이처럼 신용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른 것은 지난해 말부터 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엄격히 제한함에 따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는 대신 자금이 필요한 가계를 신용대출쪽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대출이 대부분인 신용대출 금리가 폭등한 것은 당국의 규제로 인해 부동산 구입용이 아니라 생활자금 등이 필요한 가계에 금리부담만 키우는 결과를 빚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10대그룹 임원 연봉 평균 7억 일반직원 14배

10대그룹이 작년 이익감소에도 불구하고 임원들의 연봉을 크게 올려 일반 직원들의 14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0대그룹 78개 계열사 가운데 3월결산 법인회 사급장사 등을 제외한 67개사의 등기임원 연봉은 평균 7억319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1% 증가했다. 이는 작년 10대그룹 일반직원 평균 연봉 4천951만원의 14.2배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일반직원 평균 연봉 3천9천140만원의 17.9배에 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10대그룹은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작년 매출액이 평균 5.91% 늘어나는데 그치고 순이익이 12.04% 급감하는 등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임원들의 연봉을 올렸기 때문에 고통을 분담하기 보다는 임원들이 자신의 잇속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등기임원의 연봉은 작년 43억 원으로 전년의 81억5천만 원에서 무려 47.24% 급감했음에도 10대그룹 계열사 가운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수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 주택대출금리도 폭등세

0.03%P 인상 전망

양도세에 금증서(CD) 금리가 또 다시 급등해 4년여만에 5%대에 접어들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다시 한번 큰 폭의 오름세로 전환됐다. 지난해 콜금리·지급준비율 인상 등 긴축정책의 여파로 주택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CD금리가 재차 상승 기조로 돌아설 경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가계 금융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CD금리가 상승세로 접어들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오름세로 전환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주 주택대출금리를 1주 전 대비 0.03%포인트 올린 연 5.98~7.08%로 적용한다. 우리은행도 이번 주 주택대출금리를

지난주 초 대비 0.03% 올려 연 5.88~7.18%를 제시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이번 주 주택대출금리는 연 5.68~7.28%로 한주전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여타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부 주택대출금리도 지난주보다 0.02~0.03%포인트 올랐다. 각 시중은행들이 CD금리를 주택대출

금리에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 지난주 오른 CD금리(23일 0.02%포인트, 27일 0.03%포인트)는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한·우리·하나은행 등의 경우 23일 금리 상승분을 지난주에 이미 반영했으며 27일 상승분은 30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국민은행은 29일 상승분을 30일부터 반영하고 27일 상승분을 그 다음주 월요일(5월7일)부터 반영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로또복권 (제230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05 11 14 29 32 33	12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1,292,929,163	8
2 5개 숫자+보너스 일치	68,956,222	25
3 5개 숫자 일치	1,662,397	1,037
4 4개 숫자 일치	61,190	56,346
5 3개 숫자 일치	5,000	971,324

팝콘복권 (제53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	10억	3조 932312
2	5억	3조 932311
3	1천만	3조 932313
4	1백만	각조 25772
5	1만	각조 828
6	2천	각조 84
7	1천	각조 22
		각조 3
		각조 8



대주건설 이영준 사장이 29일 장흥군 장흥CC에서 열린 창사 26주년 기념식에서 '2006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대주건설, 우수협력업체 시상

대주건설은 29일 장흥군 장흥CC에서 김익중 부회장, 이영준 사장 등 임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35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06 우수협력업체 시상식'과 '대주가족 아우리' 등을 갖고 창사 26주년을 자축했다. 이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주건설이 건설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명실상부한 명문 건설사의 반열에 오른 것은 임직원과 협력업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가 큰 힘으로 작용했다"며 "업체간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협력업체 및 임직원이 동반자적 관계를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신용토건(대표 박용범)이 최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된 것을 비롯, 피에스건설(대표 최정원) ▲(주)대연네시스(대표 최민호) ▲(주)동광그린도어(대표 김중희) ▲(주)금일건설(대표 이동구) ▲(주)한국우드(대표 민현기) ▲(주)서원전기(대표 박종환) ▲(주)이인앤씨(대표 오기남) ▲(주)삼원테크(대표 조홍식) ▲대성산업(대표 정광우) 등이 우수업체로 선정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에너지 가격 '들쭉'

휘발유값 11주 상승...내달 도시가스료 인상

휘발유와 경유가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다음달부터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되는 등 에너지 가격이 들쭉이고 있다. 29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무연 휘발유의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은 1 당 1천524.79원으로 전주에 비해 11.58원 상승, 지난해 9월 첫째 주의 1천532.45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무연 휘발유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은 올해 2월 둘째 주부터 11주 연속 오름세를 타고 있다. 이달 넷째 주 경유의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은 1 당 1천232.54원으로 전주보다

10.28원 올라 휘발유와 함께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내 등유와 보일러 등유의 평균 가격은 각각 1 당 898.95원과 909.19원으로 전주보다 5.75원과 4.33원 상승했다. 문제는 국제유가의 상승 추세로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들이 동반 오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올해 2·4분기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치를 상향했다. 협의회는 지난달에 2·4분기 국제유가가 1·4분기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배럴당 55~60달러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측했었다. /연합뉴스

## 외국인 관광객 선호도

한국, 14국 중 10위

아시아 지역 여행을 계획하는 외국인의 방문대상지 선호도에서 한국이 아시아 14개국 중 10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비자카드가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와 함께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10개국 관광객 5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7 아시아 지역 여행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년 내 아시아 지역으로 여행을 고려하고 있는 응답자 중 한국을 행선지로 택하겠다는 응답자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나라는 태국(57%)이었으며 이어 홍콩(48%), 일본(47%) 등의 순이었다. 한국인들은 앞으로 2년 내 여행을 하고 싶은 아시아지역 국가로 일본(59%)을 가장 선호했으며 이어 중국(47%), 홍콩(33%) 순으로 나타났다. 여행 중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60%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인의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 선호도가 77%로 가장 높았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에피플러스	반도체 생산직인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4/30	062-605-9736
㈜신성금형	CNC 운영자, 공정점차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5/04	011-644-0060
㈜이인텔서비스	LG텔레콤 고객센터 정규직 상담사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5/07	062-601-7203
공강인조	인테리어 설계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10	062-264-0488
한길시스템	복사/재본/출력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10	062-675-8559
㈜주연	사무관리/총무부/영입부 사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5/10	062-373-9012
㈜조은기획	메디칼인출판인쇄 제품포장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5/10	011-647-2859
㈜광주대현여행사	항공업무/OP 사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5/11	062-223-2000
로알(TOYO)	매출관리 및 경리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1	062-526-2792
금아산업개발(주)	전문건설업 석공사업 시공관리자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5/11	062-373-1440
영농조합법인학사농장	유기농 식당 관리 및 운영자 사원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5/15	061-392-2220
㈜엘비스텔레소프트 여수지점	LG파워콤 여수콜센터 채용공고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15	1644-5012
쿠쿠복합주서비스센터	쿠쿠 용품점 신입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5/15	062-511-3520
㈜이희우레탄 (평동공정)	도면작성/생산출고 보조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5/15	062-944-9022

(광주잡코리아 012-6210 제공)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